

치 사

포교현장에서 오랜 동안 정진하신 스님과 불자님을 모시고 제23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봉행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면면히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23회 포교대상 수상자들이 각 분야에서 묵묵히 포교에 전념하였기에 종단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포교는 자기 수행으로 얻은 지혜를 다른 이와 나누는 최고의 공덕이자 적극적인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45년간 맨발로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을 만나며 오로지 포교의 길을 걸으셨던 것은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포교대상을 수상하시는 무산 오현 큰스님은 일찍이 제3교구 본사인 설악산 신흥사에 주석하시면서 지혜와 자비로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용하면서도 큰 통찰력으로 사회의 정신문화를 향도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문인으로서 우리나라 문학계에 불교의 세계관을 전파하고, 때로는 수행자로서 지역사회와 사회지식인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특히 일제강점 하에 조국독립에 평생을 바치셨던 만해스님을 국가적으로 선양하기 위해 만해대상을 제정하여 세계적인 의미로 발전시켰으며, 백담사에 만해마을을 조성하여 국민일반에 정신문화의 귀감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학양성과 지도에도 진력하시어 제3교구 소속 사찰과 스님들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구현하는 가운데, 이제는 불자뿐만 아니라 시민과 국민을 위한 정신의 귀의처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무산 오현 큰스님의 포교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하고 유해환경 감시에 앞장서며 청소년 포교에 새장을 연 세원사 주지 정운스님, 1964년 이래

120여개의 해외선원 개원과 국제선원 운영으로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서며 종단의 신도교육에 앞장서 온 서울 화계사, 청소년 장학사업과 문화프로그램 보급, 그리고 부산불교방송국 개국에 공헌한 김윤환 부산불교 실업인회 회장님, 1만 8천명 이상을 무료로 진료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자비를 실천한 중앙신도회 산하 반갑다 연우야를 공로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포교현장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열 분을 원력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통도사 창원포교당 신공스님, 호국천룡사 법연군법사님, 성불사 학명스님, 동국대학교 김선근 명예교수님, 측추병원 행정원장 김영란님, 사단법인 자행회 박명혜 회장님, 사회복지법인 선양 김귀경 이사장님, 가수 장미화님, 포교사 김동확님, 거창여고 김연우님 등, 한분 한분의 일상의 삶이 원력을 실천한 귀감이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교는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들에게 부촉한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포교는 모든 불자들의 의무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의 원력과 자비심을 본받아 많은 불자들이 포교의 일선에서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너와 나의 구분 없이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안락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포교대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기2555(2011)년 10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